하루를 시작하며

‘ㅣ’ 모음 살리기에 우리 모두 함께하자

이 종 실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상임이사

요즘 제주어 사용과 보존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다. 간판과 안내문에 제주어가 종종 눈에 띄고, 거리와 모임 등에서 제주어가 자주 들린다. (사)제주어보전회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 방문 제주어 교육은 좋은 반응과 함께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ㅣ’모음의 표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게 무척 아쉽다.

‘ㅣ’모음은 제주어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이자 우리말의 보물이다. 이 모음은 제주어가 많이 간직하고 있는 음소이고, 제주의 많은 토박이 어르신들이 훌륭한 발음으로 보유하고 있다. 또한, 훈민정음의 모음 제자원리(制字原理)에, 하늘의 둥근 모양과 땅의 평평한 모양,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각각 ‘ㅣ, ㅡ, ㅣ’가 기본 삼재(三才)로 등장하고 있다. ‘ㅣ’모음은 하늘을 상징하면서 우리말 표기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ㅣ’모음의 신세가 무척 가련하다. 이 모음을 포함하는 표기가, 책자나 간판에는 가능하지만, 요즘 대세인 ‘스마트폰’의 ‘SNS’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서는 불가하다. 그게 가능한 국내 이동통신사가 있기는 하나 같은 통신사 가입자끼리만 통하며, 이 기기에서 보낸 문자도 다른 회사 제품에서는 깨져버린다. 그래서 ‘웹’상에서는, ‘ᄆᆞᆯ(馬)’을 ‘ㅁ·ㄹ’처럼 나란히 배열하는 매우 원시적인 방법으로 표기하여 소통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호칭이, ‘하늘아’라면 몰라도 ‘옆아(?)’인 ‘ㅏ’와 구분하기 위함인지, ‘아래아’로 불리는 것도 큰 설움이다. 이런 신세는 속칭 ‘쌍아래아’로 불리는 이중모음 ‘ㅙ’도 같다.

‘ㅣ’와 ‘ㅙ’모음의 사용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삼재 중 ‘ㅡ’와 ‘ㅣ’는 홀로 자음과 함께 표기가 가능한데 ‘ㅣ’만 배제되고 있다. 이 모음은 원래부터 있었고, 원래의 우리말이 간직하고 있기에 매우 소중하다. 이 소중한 자산이 제주어에 아직 잘 남아 있기에 살리자는 것이다. 지방의 언어라고 표기의 가불가(可不可)를 기준으로 차별되거나 무시되어서도 안된다. 혹시, 제주어에서도 소수만이 발음하고 있어서 ‘ㅗ’나 ‘ㅏ’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 역시 옳지 않다. ‘ㅁᆞㅁ 쿡’ 대신 ‘몸국’을 맛있게 먹을 수 없고, ‘ᄎᆞㅁ지름’을 ‘참지름’으로 표기할 순 없지 않은가. 우리말에도 모음이 실제 발음이 아니라 표기로 구분되는 경우는 많다.

‘ㅣ’모음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 일상의 언어는 물론 책자나 간판의 표기, ‘웹’상의 소통에 ‘ㅣ’나 ‘ㅙ’모음이 들어간 어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고, ‘인터넷’이나 ‘내비게이션’ 등에서 두 모음의 표기로 검색할 수 있게 통신사와 제작사는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계된 학계와 단체 및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회사에 적극 요구하고, 필요하면 정부도 나서야 한다. 이는 제주어를 보전하고 그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훌륭한 우리말의 본 모습을 지탱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ㅣ’모음 살리기에 우리 ㅁᆞㄴㅎᆞㄴ디ㅎᆞ게마씸!

사설

정부 마늘수매 대책, 시늉만 내선 안된다

정부가 마늘 수매계획을 발표했으나 마늘농가를 위한 대책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주에 배당한 수매물량도 생색내기 수준인데다 수매가격도 턱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마늘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맞는지 실망스럽습니다.

제주농협 등에 따르면 올해산 전국 마늘 생산량은 36만9000t으로 지난해보다 3만7000t(11.3%)이 늘었습니다. 제주지역도 올해 생산량은 3만6446t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습니다. 과잉생산이 우려됨에 따라 제주농협은 계약물량 8000t과 함께 비계약물량 5000t을 추가로 수매해 현재 1만3000t을 저온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제주에 배당한 마늘 수매물량은 500t에 그쳤습니다. 이는 농협이 사들여서 저장한 물량의 3.8%에 불과합니다. 수매단가도 ㎏당 23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한 ㎏당 2500~3000원의 수매단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매 규격은 5㎝가 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것은 타 지역에서 재배하는 대서종 밖에 없습니다. 제주산 남도종은 수확시기도 대서종보다 한달 빠르기 때문에 수확 후 저온창고에 보관하면서 보관료 부담이 만만찮은 실정입니다.

정부가 진정 마늘 수매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수매물량이 적은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매조건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는 농협이 수매한 마늘과 저온창고에 보관한 물량은 수매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제주산 마늘은 정부수매에 응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산 마늘이 정부 비축 수매 물량에서 사실상 제외되면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부는 마늘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수매물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제2공항 공개토론회 반드시 성사돼야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제주자치도와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간에 공개토론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반대대책위측과 직접 만남도 계획하고 있어 그 성사 여부도 주목됩니다.

제2공항성산읍반대 주민들과 단체들은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 원천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현 제주공항 확장을 통한 공항 인프라 확충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열렸던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그리고 제주자치도가 추진한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 공청회 등에도 참여하지 않고 무산시켰습니다.

여기에 맞서 원희룡 지사는 유튜브를 통해 제2공항 타당성 홍보에 주력해왔습니다. 반대측이 제기하는 현 공항 확충방안을 담은 ADPi(프랑스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보고서 검증에 대해 안전성 보장도 없는 결과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주장한 공론조사에 대해서도 시간끌기용이라고 폄훼해왔습니다.

일부에선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반대 주민과의 소통에 무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대책위원회가 제안한 공개토론회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소통의 틀은 마련됐다고 할 것입니다. 토론회에서 양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 설명하고 대안을 내놓으면 됩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는 멈추지 않으면 둘 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 할 뿐입니다. 서로를 자극하는 발언은 가급적 억제하고 인내하면서 설득하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주민도 제주도민들입니다. 제주도정 방향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만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열린마당

봉사활동은 의무가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

정 미 라
제주시 도시계획과

7월은 초·중·고등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다양한 방학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방학이면 봉사활동 할 곳을 찾느라 고민하고 학부모들도 자녀가 어떤 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알찬 경험을 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유용한 봉사활동 실적을 쌓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자원봉사(自願奉仕)는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으로 단어의 의미는 ‘스스로 원해서’ 나라나 사회, 타인을 위해 봉사를 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 봉사활동은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하는 필수적인 ‘의무’가 되어버렸다.

시간을 채우면서 봉사의 참 뜻을 깨닫고, 헌신적인 마음을 배우면 좋겠지만 여건상 쉽지 않다.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봉사의 의미가 단지 학교에 제출할 시간 채우기로 변한 것이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주는 즐거움이 받는 즐거움보다 크다고 했다. 자신이 준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봉사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베풂을 받아 삶을 완성하는 일이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정보 등을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학부모들도 자녀와 함께 자원봉사에 동참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방학을 시작으로 해서 대학입시가 끝나면 시들해지는 봉사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가슴 한켠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해보길 권해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원지사, 탄탄한 상·하수도 관리체계 주문

물관리 정책 확인 강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하수 관리를 위해 부서를 뛰어넘는 탄탄한 물 관리 체계를 주문.

원 지사는 이날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상·하수도 문제와 관련 “청정 제주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물인데 물을 공급과 소비, 수요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

이어 “원론적으로 얘기해놓고 일 터지면 임기응변이나 부분적 응급대책을 내놓는 경우가 있을 텐데 주기적으로 정책을 확인하고 새로운 캠페인을 통해 대책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조상윤기자

제주시, 시책 아이디어 발굴

○…제주시가 7급 이하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눈길.

시는 지난 15일 제1별관 회의실에서 7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이루미 시책 개발팀’의 시책 제안 발표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추진 가능한 시책들을 선택해 시정에 반영해 나가기로 결정.

시 관계자는 “10건의 시책이 제안됐는데 관련부서와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더 나은 시책으로 보완·발전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언급. 고대로기자

도교육청 전직원 명사 특강

○…제주도교육청이 ‘역발상을 다시 역발상하라’를 주제로 명사 초청 특강을 실시.

교육청이 1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특강에선 조웅래 (주)맥키스컴퍼니 회장이 ‘산속 돌길에 황토를 깔아 14.5㎞ 맨발 황톳길 조성’ 등 고정관념을 깬 역발상에 대해 강의하고, 정진옥 맥키스오페라 단장이 쉽고 재미있는 성악공연을 선사.

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강연으로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수준 높은 성악 공연으로 힐링도 할 수 있었다”고 소감. 표성준기자

부 고

양성희 어머니 **김해김씨 시선(향년 88세)**께서 서기 2019년 7월 15일 23시 23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7월 17일(수)
▶발인일시: 2019년 7월 18일(목)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충혼묘지

딸 양성희 사 위 고성칠
연재(성애) 한상엽
성순 박기철
성미 정병희
경숙 김영균
외손자 고종현 외손녀 고민경
한재준 지운
재승 시연
정재원 박소영
김석한 재현
수현
김교리

※ 연락처 : 고성칠 010-9898-2277
한상엽 010-2689-9000
박기철 010-2689-5555
정병희 010-2699-4188
김영균 010-7274-4228

부 고

김지헌 아버지 **안동김공 일오(수의사·향년 47세)**께서 서기 2019년 7월 15일 19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7월 17일(수)
▶발인일시: 2019년 7월 18일(목)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9분향실
▶장 지: 제주시 아흔아홉골선영

부 김태희(故)
모 강계생
부 인 강정인
아 들 김지헌
지우

※ 연락처 : 김남훈 010-9900-0686

부 고

김근형((주)중앙교통 대표이사, 국제로타리3662지구 2대 총재) 아버지 **김해김공 자연(향년 94세)**께서 서기 2019년 7월 15일 13시 4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7월 17일(수)
▶발인일시: 2019년 7월 18일(목)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해안동 가족묘역

아 들 김근형 며느리 문춘심
근호 양태옥
근봉 오정숙
딸 김근희(근복) 사 위 오훈탁
근열 문영화
소연 Metz David
근실
손 자 김희승 손 부 김소연
희준 외손자 문성건
희진 혁건
용진 오재환
손 녀 김지영 재림
지은 외손녀 옥혜인
지일
해영
슬기

※ 연락처 : 김근형 010-3699-3386
문춘심 010-3600-2181
김근호 010-8992-5144
김근봉 010-5588-7856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양홍공 태상(향년 8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7월 17일

부 인 송재순
아 들 홍성우 며느리 한지현
성완 양문희
성배 고금이
딸 홍연숙 사 위 양명환
경희 김윤범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장수황공 영주(향년 8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7월 17일

아 들 황의하
의선 며느리 공서영
딸 황희숙 사 위 박용수
의란 이승철

evworld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1544-8236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김씨 행유(향년 9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7월 17일

아 들 김정학
딸 김혜정 사 위 김원하

무연분묘개장공고 (2차)

본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서귀포시에서 개장허가를 받아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기수	비고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2047-5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장소 : 성산읍 봉안당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하에 적정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화장 후 무연고 봉안당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김종국 ☎ 010-3693-618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4098번길 92-101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064)760-6522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 시업구간내에 식별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위공고인 : 김종국 ☎ 010-3693-618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4098번길 92-101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